

# 트럼프 득세...사우디, 러시아·이란과 밀착 행보



총상을 입은 오른쪽 귀에 거즈를 착용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참석, 짐 조던 하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는 전당대회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 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 속에 중 동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대적 국가들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은 "정치, 통상, 경제, 에너지 등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분야의 의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이 상호존중을 토대로 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 우호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지도자는 특히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틀 내에서 면밀한 협력을 계속할 중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고령의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

## 빈살만, 푸틴과 통화...원유공급 조절 등 협력강화 논의 이란 새 대통령과도 '여러 분야 협력 확대할 필요성' 강조

역할을 하는 실세다. OPEC+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기존 OPEC에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이 모여 공급량을 조절하는 협의체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에도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온 국가다.

미국은 OPEC+와 연계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협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고유가로 누리는 전쟁자금 추가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유 증산을 압박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찬가지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란과도 관계

개선을 향한 행보에 속도를 높였다.

이란 ISNA 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마수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로 양측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2016년 단절된 외교관계를 중국의 중재 속에 지난해 3월 복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란도 동맹국들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국가로 간주해 이란의 대외관계 확장을 경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러시아, 이란 밀착은 미국의 정치권의 대혼란 속에 이뤄져 더 주목받는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암살 시도를 겪으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동성적 여론 등으로 크게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대선후보 토론에서 고전한 뒤 당내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는 등 돌고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해왔으며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 인권,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 서방의 가치를 압박해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그대로 장악한 채로 전쟁을 끝낸다는 입장이며 외국 내정이 자국에 별도 이익이 없으면 간섭하지 않는 고립주의 성향을 보여 왔다. /연합뉴스

##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 '문명 미접촉 부족' 포착

인권단체 "벌목 허가지 인근 강가서 수십명 확인"

남미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원주민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로이터통신과 미 CNN방송은 영국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이 최근 아마존 지역 '마슈코 피로' 부족을 카메라에 포착했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된 해당 영상을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 서로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긴 도구를 들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도 보인다.

이들은 마슈코 피로 부족민으로, 이 희귀한 이미지는 지난달 말 한 벌목 회사가 벌목권을 가진 곳과 가까운 페루 남동부 마드레데오스 지역 강둑에서

찍은 것이라고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전했다.

브라질 가톨릭 원주민선교위원회의 로사 파질라는 로이터에 "1년 중 이맘 때쯤 해변에서 그들은 아마존 거북이 알을 가져간다"며 "최근엔 브라질 국경 쪽에서도 마슈코 피로 부족민이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원주민 단체인 페나마드(Fenamad)는 이 은둔 부족이 최근 몇 주 동안 열대우림에서 식량을 찾아 더 자주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페루 정부는 아마존 일대에 퍼져 있는 마슈코 피로 원주민 수를 약 7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현지 학자들은 19세기부터 탐험가들에게 당한 '괴롭힘' 때문에 마슈코 피로 족이 다른 지역 사회와의 접촉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中 쓰촨성 백화점 대형화재로 16명 사망

중국 서남부 쓰촨(四川)성의 한 백화점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로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중앙TV 등 현지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1분께 쓰촨성 쑹시 가오신구 주당백화점빌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14층 건물 1층과 4-6층에

서 발화해 목격됐다. 불은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꺼졌지만, 건물 안에 갇혀 있던 사람 가운데 1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CCTV는 전했다. 현지 소방당국은 오후 9시 30분께까지 30명을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공사 작업 중 불이 났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에 "법무부 법 집행 적절"

미국 국무부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그녀가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미국 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 사건 질문에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FARA는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 로비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법

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과 금전적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으로 테리는 이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밀러 대변인은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라며 "법무부의 법 집행은 적절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건을 한국 정부가 논의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미 테리는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해 지난 16일(현지시간) 체포했다가 보석을 허가했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b>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b>	<b>매일/9시~</b>
<b>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b>	<b>수시접수</b>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